기로회 4월 월례회의

낭중공 단소 수호 결의

▲ 기로회의 월례회가 열리고 있다

안동권씨기로회耆老會는 4월 10일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를 열었다. 권오일權五逸 총무의 사회로 동남쪽 안동의 시조묘소를 향한 망배와 열선조에 대한 묵념을 하고 개회가 되었다. 권영상權寧相 회장이 집에 연고가 있어 이날 회의에 나오지 못함에 따라 권준식權俊植 수석부회장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권오일 총무가 경과보고에서 기로회 사무실 건물 지분의 쇄환문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설명하였다. 원래 기로회가 들어 있는 건물을 신축할 때 각기 주인이 다른 2개동을 하나로 통합해 지었는데 한 건축주가 자금이 달려 경매를 당하게 되었고 이를 제2대 기로회장고 권태훈權泰勳공이 낙찰을 받아 기로회에 기증한 바였다. 이때 낙찰받은 것이 건물 1개층이었고, 뒤에 지주와 건물주 사이에 오랜 송사가 벌어진 끝에 건물주가 그 부지를 매입하라는 판결이 나와 입주 건물주들은 대지도 5등분하여 매입하지 않으면, 건물지분을 매각하고 나가야 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기로회는 궁여지책으로 중앙종친회에 3천만원 차입을 청했고 중앙종친회는 3천만원을 빌려주어 그 대지를 매입케 하면서 대지 뿐만이 아니라 건물지분의 등기권리까지 요구하여 양자를 다 자체 소유로 하고, 이로부터 건물 지분도 등기상 자기 소유라 하여 횡점함에 따라 문제가 되어온 것이었다. 이 문제는 이미 20수년이 지난 일이어서 연혁을 잘 아는 사람조차 없어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법원에 다니며 화해조서와 1심판결문 등을 어렵게 받아내 그 경과를 설명함에 따라 그 윤곽을 알게 되는 것같았다.

다음 토의안건이 상정되었는데 경북 청도의 아시조 낭중공 단소와 유적을 폐철하고 이설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낭중공 봉암재사鳳巖齋舍의 수임을 지낸 권병홍權炳洪 직전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다. 청도 운문면 공암촌에 2세조 낭중공의 제단을 설하고 향사를 받들어 온 것이 칠팔십년이 되었다. 윗대에 우리보다 못하지 않은 어른들이 어렵게 이룬 큰일인데, 이제와서, 그때보다 교통과 모든 여건이 비교가 안되게 좋은 후손들이 불편을 이유로 이단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조상에게 득죄하는 일이라는 요지를 말하고 원로들의 의견 개진을 청하였다.

권우식權虞植 회원은 대종회의 종무위원이기도 한데 당시, 종무위원으로서 이단 결의시에 참석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대종회 종무위원회의에서 낭중공 단소이전 문제가 나와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 없이 결의되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선정되어 현재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였다. 이에 대해 그 불가함을 성토하는 의논이 일어났다. 이는 조상을 모독하고 우리의 얼을 빼앗는 행위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어 ‘ 낭중공 단소 및 유적 수호 결의문 ’을 채택키로 하였다.

그 결의문은 월례회일인 4월 10일자로 하되 별도의 기초위원 겸 대표서명자를 정하여 그 문안작성 및 배포를 위임키로 했는데 그 대표 서명자는 다음과 같았다.

권영상權寧相 기로회장
권영길權寧吉 기로회 고문
권영익權寧翼 기로회 명예회장
권병홍權炳洪 기로회 직전회장
권준식權俊植 기로회 수석부회장

<사진 · 글 權奇允>

격려에 감사합니다

4월 26일 강릉청장년회에서 10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

여열사 竹稚 권애라의 생애 【19】

전란과 독재하의 수난

이튿날 새벽이 되자 김시현은 부평동의 여관으로 유시태를 찾아가 당일 행할 일을 다시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충무동 광장의 행사장을 사전답사하여 대회장의 구조를 잘 살폈다. 그리고 부평동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여관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바로 또 대회장으로 나갔다. 이날 충무동 광장에서는 6·25사변 발발 2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와 함께 총력북진總力北進을 촉구하는 시민의 궐기대회蹶起大會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러 나오는 것이었다. 유시태는 권총을 중절모에 넣어 머리에 쓰고 그에 앞장서 걷는 국회의원 김시현을 뒤따랐다. 대회장은 대통령이 임석하는 바라 경계가 삼엄했다. 입장자의 몸을 일일이 수색하는 경관에게 김시현은 ‘ 나는 국회의원 김시현이오 ’ 하고 들어서자 대번에 거수경례를 붙이고 차렷자세를 하며 감히 그 몸을 수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따르는 유시태를 보고는 ‘ 이분은 누구세요? ’ 하고 물으며 그 통과를 저지하려 했다. 이에 김시현이 다소 위압적인 목소리로 ‘ 나와 동행하는 내 동지야 ’ 하고 눈길에 힘을 주자 경관은 ‘ 예, 알겠습니다 ’ 하고 통과시켰다. 일단 입장을 한 유시태는 슬쩍 모자속의 권총을 꺼내 저고리 호주머니로 옮겨 감추었다. 국회의원인 김시현과는 다른 자리이지만 저격하기 좋은 위치를 잡아 앉은 유시태는 권총이 든 저고리 호주머니를 겉으로 만지면서 흡사 포수砲手가 득의의 지점에서 포획대상을 노리는 듯 결기에 차 있었다.

이윽고 시간이 되자 키가 크지 않으나 다소 부대한 체구의 이승만 대통령이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입장하고 잠시 후 식순에 따라 연단에 올라가 동원된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이 한참 열변으로 이어질 때 연단 바로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유시태가 번쩍 일어서 튀어나가서는 이승만의 2미터 정도 등뒤에서 권총을 빼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방아쇠를 두번세번 당겨도 격발이 되지 않고 유시태의 오른팔 근육만 움찔거렸다. 실탄이 제조된 지 너무 오래되어 이미 불발탄화한 때문이었다. 주변의 목격자는 순간의 돌발사에 눈을 휘둥그레 뜨며 혹자는 손에 땀을 쥐기도 하였다. 유시태는 금테모자를 쓴 경호경관들에게 전광석화같이 제압되어 별 소란도 없이 끌려갔고 이 돌발사태를 등뒤로 느끼면서도 짐짓 모른 체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행사가 끝나자 김시현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따라 임시 대통령관저로 이동하였다. 대통령관저에서는 오찬이 나올 것이고 헌법개정을 에워싸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자리를 빌어 방금 적대적인 민주국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시현 같은 국회의원을 환대하여 포섭하고자 할 것이었다. 권총 실탄의 불발로 거사가 실패한 김시현은 미구에 고문으로 유시태가 입을 여는대로 검거될 것이었다. 김시현은 관저에 가 몸소 자기 몸을 던져 목적을 달성코자 했다. 기미를 보아 경호경관의 장총이라도 탈취해 저격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기일발의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이 발발한 직후라 대통령에 대한 신변경계는 관저에서도 철통같았고 그런 가운데 김시현은 어떤 틈도 포착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관저를 물러나오며 김시현은 요행히 잡혀가 형장에서 죽지 않는 한 어떻게든 후기後機를 도모할 것을 다짐했다.

하루가 바뀐 1952년 6월 26일 김시현은 대통령 저격사건을 배후에서 획책하고 지시한 정범으로서 체포되었다. 뿐만

7면으로 계속

능동춘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03면 · 값 1,300원 · 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우110-044
전화 02) 734-3085 · 732-9139 / 전송 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